

■ "9+ 2" 범주강삼각주(Pan Pearl River Delta) 경제권

□ “9+ 2” 경제권 개념

- 광둥성은 중앙정부의 후원하에 주강삼각주(광주, 심천, 주해 등 광둥성 14 개 市, 縣)를 중심으로 복건, 강서, 호남, 광서, 해남, 운남, 귀주, 사천 등 9 개 성, 홍콩, 마카오 등 2 개 특구를 묶은 중남부 지역경제 통합을 제창. 경제공동체내 각 지역정부간 기간시설, 산업, 투자, 통상, 관광, 과학 등 10 개 분야 상호협력 약정서 체결하였음.
- 중국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 및 “점-선-면” 개방정책에서 가장 마지막 “면”의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인 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 정책 본격화 신호라고 할 수 있음.



○ 경제력 현황

- 범주강 삼각주 GDP 6,500 억 달러에 육박.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9 개 성의 GDP 만 4,700 억 달러로 중국 전체 GDP 의 33.3% 차지
- 면적 199.45 만km², 인구 4.59 억 명, 각각 중국 전체의 20.78%, 34.7% 차지
- 9 개 성의 수출액 3400 억달러, 중국 대외수출의 39.9% 차지

□ “9+2” 경제권 추진 배경

- 광동성 동부지역(심천, 동관)의 토지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광동의 기술과 자본을 서부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광동성 동부지역의 경우 이미 전자, 통신관련 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 노동집약적 산업은 토지 및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주변지역으로 이전 추세
- 광동성이 다른 성과 맺은 경제기술협력 항목만 8,000 개 이상, 금액으로는 5,500 억 위안에 달함.
-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지역내 기간시설들을 확충하고 인근지역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자체 경쟁력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음.

□ “9+2” 경제권 발전 방향

- 단기적으로는 지역간 협력을 통해 기간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회피 노력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홍콩, 광둥 등 주강삼각주 기존 경제력의 인근지역으로의 전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경쟁력 확보도 가능함.
- 범주강삼각주 각 지역간 중점 추진이 예상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음.

분야	예상 추진내용
교통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아울러 정책적 지원도 병행. 홍콩, 마카오 자본을 활용한 기간시설 확충 강화. 지역간 일일경제권 추진
에너지	“西電東送”(서부 전력의 동부지역 이전) 추진 강화. 중서부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범주강삼각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
제조업	노동, 자원집약형 산업인 제조업, 가공무역업의 분업과 협업 가속화. 주강삼각주는 기술, 자본, 시장, 정보를 이용한 R&D, Marketing 센터의 역할을 담당. 주변 지역은 원료, 전력, 토지, 노동력 우위를 이용한 신흥 생산기지로 부상
유통	홍콩 마카오와 긴밀히 협조해 E-trading, E-trucking 등 현대적 물류유통 기법 도입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중국정부는 “9+2”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엔진” 만들기에 나섬. 홍콩, 광주, 심천처럼 발전된 지역의 기업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낙후 지역의 경제도 함께 발전시키는 ‘Win - Win 전략’으로 분석됨.
- 광동성, 홍콩의 경제력이 주변 통합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저변 확대 및 Up-grade 가 예상됨.

- 종래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 생산력을 확대해온 방식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자체 경쟁력의 분산이 가능해짐을 의미. 올해 연말까지 “9+ 2” 계획이 국가경제발전계획에 포함돼 기존 경제개발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범주강삼각주 경제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기획력이 부족한 상태임. 지역간 소득 수준과 발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
- 또한, 전통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성, 도시간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 또는 산업별로 구조조정 실시를 통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수행할 만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기업으로서는 SOC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 관련제품 수출 노력 절실
- 권역내 주요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공공 조달부문 참여 기회 확대 (도심 교통신호체계 자동화 프로젝트, 지하철 개찰 시스템 등)
-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주강삼각주 공공 프로젝트 규모의 확대 (고속도로, 환경치리, 신규 시설 프로젝트 등 약 266 억 달러 규모)
- 상대적으로 역할이 강화된 심천, 광주 등 광동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기지 확보 및 대형 할인매장 진출 등 기존 제조업 투자에서 벗어나 물류, 유통업 진출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문의처 : 팡조우무역관 강병수 kotrachina@hanmail.net)